

大同哲學會 논문집
『大東哲學』 제43집 2008. 6.

법학적성시험(LEET)은 논리적 사고력의 측정도구인가: LEET, LSAT, PSAT의 비교 연구*

여 영 서**

요약문

2008년 여름에 처음 시행될 법학적성시험(LEET)의 실질적 성공을 위해 LEET의 목적 및 출제 방향이 올바르게 설정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러한 설정에 따라 좋은 문제의 출제가 이루어 지겠는가에 대해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LEET를 미국의 법학대학원 입학시험인 LSAT 및 국내의 공무적성시험인 PSAT 등과 비교할 때, LEET는 현재 논리적 사고력의 측정에만 초점을 맞추는 LSAT 및 PSAT와 달리 논리적 사고력을 넘어 “기본적 소양과 잠재적인 적성”을 시험의 측정 내용으로 삼고 있다. 특히 다양한 학문 분야를 포괄하겠다는 의도와 달리 “기본적 소양과 잠재적인 적성”으로 국어 문제가 과도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이 LEET가 LSAT 및 PSAT와 구분되는 점이다. 시험 문제의 출제 원칙이 하나의 문제로 하나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라면, 하나의 시험은 가능한 한 하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따라서 LEET는 LSAT나 PSAT처럼 논리적 사고력의 측정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 **주요어** : 법학적성시험, 미국 법학대학원 입학시험, 공무적성시험, 법학적 소양, 논리적 사고력.

1. 들어가는 말

2008년 여름에 처음 시행될 법학적성시험(LEET: 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은 올바른 법조인 후보자를 선발하기 위한 시험으로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다. 이에 우리는 LEET의 실질적 성공을 위해 LEET의

* 본 논문은 동덕여자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된 것임. 이 논문은 大同哲學會 창립 10주년 기념 학술대회(2008년 5월 31일 충북대학교)에서 발표된 글을 수정한 것이다. 본 논문의 초고는 2008년 4월 11일 한국논리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평문, “LEET, LSAT, PSAT 그리고 논리적 사고력의 측정”으로 발표되기도 하였다.

** 동덕여자대학교 교양교직학부 교수.

목적 및 출제 방향이 올바르게 설정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러한 설정에 따라 좋은 문제의 출제가 이루어지겠는가에 대해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및 문제 출제자는 공급자, 법학대학원 및 수험생은 수요자, 그리고 교육부 및 관련 학회 등은 평가자라고 한다면, LEET의 실질적 성공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LEET가 공급자와 수요자 및 평가자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시험이 된다는 것이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하게 설정된 LEET의 목적 및 출제 방향에 맞춰 좋은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LEET를 미국의 법학대학원 입학시험인 LSAT(Law School Admission Test) 및 국내의 공무직 성시험인 PSAT(Public Service Aptitude Test) 등과 비교하고자 한다. 특히 본 논문은 LEET가 논리적 사고력의 측정도구인지를 주요 질문으로 다룬다. 논리적 사고력의 측정은 LSAT 및 PSAT에서 제시하고 있는 핵심적인 측정 내용이기 때문이다.

2. LEET, LSAT, PSAT의 목적

“법학전문대학원 시대의 철학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열린 2008년 대동 철학회에서 김한승 교수는 LSAT를 소개하면서 “LSAT와 가장 유사한 평가 도구가 바로 PSAT”¹⁾ 라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PSAT를 언어논리에 한정하여 LSAT와 비교할 때 그렇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PSAT에는 상황판단 영역이나 자료해석 영역이 있어 PSAT 시험의 주요 부분을 이루고 있는 반면 LSAT에는 그에 해당하는 영역이 없기 때문이다. LSAT와 PSAT의 유사성을 강조하는 김한승 교수의 의도는 LEET가 LSAT와 가장 유사한 PSAT를 적극적으로 참조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인 듯 싶다. 이러한 주장은 바로 본 논문의 시도처럼 LEET와 LSAT, 그리고 PSAT의 상세한 비교가 의미있는 작업이라는 함축을 갖는다. 이제 목적 설정 단계에서부터 LEET, LSAT, 그리고 PSAT를 비교해 보자.

먼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홈페이지(<http://www.leet.or.kr/>)에 제시된 LEET의 목적 및 성격은 다음과 같다.²⁾

법학적성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 필요한 기본 능력과 소양을 측정하는 시험으로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전형에서 적격자 선발 기능을 제고하고, 법학

1) 김한승, 「법학적 소양 대 철학적 소양」, 『大同哲學會 학술대회 대회보』, 2008, p. 33; 「LSAT와 논리적 사고력」, 한국 논리학회 4월 학술 발표회, 2008, p. 9.

2) <http://www.leet.or.kr/>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법학적성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수학 능력과 법조인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 소양과 잠재적인 적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시험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LEET는 언어이해, 추리논증, 논술의 세 영역으로 구성되는데, 이 때 “언어이해 영역은 인문, 사회, 과학·기술, 문학·예술 분야의 다양한 학문적 또는 학제적 소재를 활용하여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 필요한 언어 이해 능력, 의사소통 능력 및 종합적인 사고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³⁾이다. “추리논증 영역은 사실이나 견해 또는 정책이나 실천적 의사 결정 등을 다루는 일상적 소재와 논리학·수학, 인문학, 사회과학,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학문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 필요한 추리(reasoning) 능력과 논증(argumentation)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⁴⁾이며, “논술 영역은 예비 법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분석적·종합적 사고력과 논리적 글쓰기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⁵⁾이다. 앞에서 LEET의 목적 및 성격은 조금 불분명하게 ‘기본 능력과 소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각 시험 영역에서 제시한 시험의 측정 내용은 대체로 논리적 사고력임을 알 수 있다.⁶⁾

LSAT는 미국의 법학대학원에 입학하려는 지원자들의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언어추론 능력을 측정한다고 밝혀 시험의 측정 내용이 논리적 사고력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LSAT를 주관하는 LSAC(Law School Admission Council)의 홈페이지에 제시된 LSAT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3) <http://www.leet.or.kr/>

4) <http://www.leet.or.kr/>

5) <http://www.leet.or.kr/>

6) 大同哲學會의 토론장에서 본 논문을 직접 비판한 지적은 아니었지만 논리적 사고력이 무엇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 본 논문은 논리적 사고력을 전제와 결론 사이의 지지 관계에 대한 이해 및 평가라는 일반적인 이해 방식 이상의 의미하고자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렇게 이해되는 논리적 사고력은 의사소통능력과는 분명히 구분된다. 최경석 교수는 LEET의 평가 내용이 의사소통능력과 사고력이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리트에 대한 종합적 반성” p. 113, 大同哲學會 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2008). 하지만 이 때 의사소통능력이라고 하면 본 논문에서 지적하듯이 애매한 의미를 지닐 뿐이다. 그 점은 의사소통능력이 LEET의 언어이해 영역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일부분일 뿐이라는 점을 다음에서 확인할 때 분명히 드러난다. “언어이해 영역은 인문, 사회, 과학·기술, 문학·예술 분야의 다양한 학문적 또는 학제적 소재를 활용하여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 필요한 언어 이해 능력, 의사소통 능력 및 종합적인 사고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다.

“LSAT는 법학대학원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는 능력을 측정하도록 설계되었다. 그 능력이란 복잡한 지문을 정확하고 통찰력 있게 읽고 이해하는 능력, 정보를 구성하고 다루며 그로부터 합당한 추론을 이끌어내는 능력,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능력, 다른 사람의 추리와 논증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능력이다.”⁷⁾

또 국내에서 공무원 임용 시험으로 현재 행정고시 및 외무고시 1차 시험 및 견습직원 선발시험으로 적용하고 있는 PSAT 역시 논리적 사고력의 평가가 초점을 맞추고 있다. PSAT의 언어논리 영역 출제전문관이었던 김명석 박사에 따르면, “PSAT는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 이들은 공통적으로 논리적 사고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차이점은 그 사고능력이 텍스트 자료에 적용되는나 수치 자료에 적용되는나 구체적 상황에 적용되는나에 놓여 있다. 언어논리영역은 글을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표현하고 추론하고 비판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자료해석영역은 수치자료를 조리있게 정리하고 이해하고 계산하고 분석하고 추출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그리고 상황판단영역은 상황을 사리에 맞게 이해하고 분석하고 추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한다.”⁸⁾

언뜻 보면 한국과 미국의 법학대학원 입학시험으로써 LEET와 LSAT는 목적 측면에서 거의 차이점을 찾기 어렵다. 차이가 있다면 LEET 쪽이 좀 더 느슨하게, 융통성을 허용하도록 제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 LEET, LSAT, 그리고 PSAT는 모두 논리적 사고력의 측정을 위한 도구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은 합의할 수 있다.

그러나 큰 차이점은 아니지만 목적의 기술 자체가 엄격하고 느슨하다는 차이점은 LSAT와 LEET는 시험의 구성 방식 및 출제되는 문제의 종류 등에 있어서 좀 더 분명한 차이점을 낳았다. 즉 LEET는 LSAT 또는 PSAT에 비해 그 목적 및 측정 내용을 매우 광범위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각 시험의 목적과 성격의 차이점은 미세한 차이일지라도 문제 출제 방향을 설정하기 때문에 실제 출제되는 문제의 성격을 크게 좌우한다. LSAT와 PSAT는 기본적으로 논리적 사고력의 측정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시험인데 반해, LEET는 “기본적 소양과 잠재적인 적성”으로 표

7) 김한승, “법학적 소양 대 철학적 소양” p. 33, 大同哲學會 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2008, “LSAT와 논리적 사고력”, p. 9, 2008년 한국 논리학회 4월 학술 발표회, 2008. www.lfac.org

8) 김명석, “PSAT와 논리적 사고력”, p. 2., 2008년 한국 논리학회 4월 학술 발표회, 2008.

현되어 있는 것처럼 시험의 측정 내용이 논리적 사고력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차이점은 LEET가 문학 작품을 지문으로 사용하여 문제를 출제하려 한다는 점과 어휘 및 어법에 대해 묻는 문제를 출제하려 한다는 점이다. LSAT 및 PSAT는 그런 유형의 문제를 출제하지 않는다.⁹⁾ 그렇다면 LSAT 및 PSAT처럼 LEET는 논리적 사고력의 측정을 목표로 하기는 하지만, LSAT 또는 PSAT와 달리 논리적 사고력의 측정만을 목표로 하지는 않는다는 결론이 가능할 것이다. LEET가 논리적 사고력만을 측정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은 즉각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하나의 시험을 만변통치약으로 삼으려는 접근 방식이 잘못이라는 점은 쉽게 동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제 LEET와 LSAT 및 PSAT의 문제 구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3. LEET, LSAT, PSAT의 문제 영역

LEET는 언어이해, 추리논증, 논술의 세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논술 영역은 300-450자의 20점, 600-800자의 30점, 1200-1500자의 50점 문항 등 총 3문항이 출제되며, 550자 원고지를 답안지로 사용하도록 한다. 그러나 논술 영역은 각 대학에서 점수 반영 비중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LEET의 점수라고 하면 언어이해 영역과 추리논증 영역의 점수를 의미한다. 이 두 영역은 모든 문제가 같은 비중으로 평가된다. LEET는 언어이해 영역에서 40문항을 출제하고 90분의 시간을 준다. 지난 예비고사를 기초로 할 때 40문항 중 4문항은 1지문 1문항의 형태이고, 나머지 36문항은 12개 지문에 각 3문항씩이 원칙인 듯하다.¹⁰⁾ 추리논증 영역에서도 40문항을 출제하는데 이 영역에서는 120분의 시간을 준다. 40문항 모두 1지문 1문항의 형태를 지닌다.

9) 표1 및 표2에서 제시되듯이 LEET, LSAT 그리고 PSAT는 서로 다른 시험이고, 따라서 서로 다른 측면은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으나, 비교 가능한 부분에서 큰 차이점을 찾자면 그렇다는 것이다. 특히 LEET는 언어이해, PSAT는 언어논리 부분에 초점을 맞춰 서로 비교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비교 대상으로 삼지 않았지만 의치학 전문대학원 입학시험(MEET, DEET)에 포함된 언어이해 시험에는 문학 작품을 지문으로 사용하여 문제, 그리고 어휘의 용법 및 어법에 대해 묻는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 다만 MEET와 DEET는 LEET와 마찬가지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출제를 주관하고 있고 또 출제진도 대부분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비교 대상이 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

10) 지난 예비고사에서 한 지문에는 4문항, 한 지문에는 2문항이 출제됐다.

LSAT는 논리적 추론(logical reasoning) 두 섹션, 분석적 추론(analytic reasoning) 한 섹션, 그리고 독해 (reading comprehension) 한 섹션, 논술 한 섹션으로 4개 영역, 다섯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다.¹¹⁾ 하지만 논술 섹션은 LSAT를 주관하는 LSAC에서 채점하지 않으며 LSAT의 점수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수험자가 법학대학원에 지원할 경우 해당 학교에 LSAT의 논술 답안을 보내주어 해당 대학원 입학처에서 자체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것은 국내의 LEET 논술 영역 시험과 마찬가지로의 체제이다. 따라서 LSAT는 실질적으로 3개 영역, 네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각 섹션은 23-27문항으로 구성되고, 각 섹션당 35분의 시간이 주어진다. 논리적 추론은 1지문 1문항의 형태이고, 분석적 추론 및 독해는 1지문 다문항의 형태이다.

LSAT의 독해 영역이 LEET의 언어이해 영역에 해당하고, LSAT의 논리적 추론 영역이 LEET의 논리추론 영역 중 논증 부분, 그리고 LSAT의 분석적 추론 영역이 LEET의 논리추론 영역 중 추리 부분에 해당한다면, LSAT와 LEET는 동일한 목적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시험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능력이 조금 다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LSAT에서 논리적 추론 영역은 전체 시험 점수의 약 50% 정도에 해당하도록 구성되어 있고, 분석적 추론 영역은 약 25%, 그리고 독해 영역이 약 25% 정도를 이루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와는 달리 LEET는 언어이해 영역과 추리논증 영역이 전체 시험 점수의 50%씩 차지한다. 즉 LEET는 LSAT에 비해 독해 능력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LSAT에서는 법학대학원 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할 수 있는 능력으로 논증의 이해 및 평가에 초점을 두고, 그 부분의 능력 측정을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한 방식으로 독해 영역과 게임 영역을 포함한 모양새인 반면, LEET에서는 독해 영역이 특히 강조되고, 논증과 게임 영역이 보완하는 모양새를 취한다고 분석할 수 있다.

PSAT는 언어논리, 상황판단, 자료해석의 세 영역으로 구성되는데 각 영역은 40문항으로 구성되고, 각 80분의 시간이 주어진다. 모든 영역에서 1지문 1문항이 원칙이지만, 언어논리 영역은 최근 1지문 2문항의 형태가 출제되기도 한다. 상황판단 영역이나 자료해석 영역은 LEET나 LSAT에

11) LSAT의 실제 시험에는 또 하나의 섹션이 더 들어가 있다. 그것은 더미 섹션이라고 해서 논리적 추론, 분석적 추론, 또는 독해 섹션 중 하나를 시험삼아 넣어 문제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 섹션은 점수 및 평가와 무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문의 검토에서 포함하지 않고 제시하였다.

서 적절히 대응하는 문제 영역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전체 틀의 측면에서 LEET나 LSAT와 비교하는 것의 의미는 없다.

아래 표들을 통해 LEET, LSAT, PSAT의 특징을 간략하게 정리해보자.

	LEET	LSAT	PSAT
목적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 필요한 기본 능력과 소양을 측정	언어추론 능력을 측정	논리적 사고력을 측정
과목	언어이해 (50%) 추리논증 (50%) 논술 (대학별 자율 반영)	논리적 추론 1 (25%) 논리적 추론 2 (25%) 분석적 추론 (25%) 독해 (25%) 논술(대학별 자율 반영)	언어논리 (33.3%) 상황판단 (33.3%) 자료해석 (33.3%)
지위	학부 성적, 영어 성적, 면접 등의 평가 기준 중 하나 (연 1회 실시)	학부 성적, 추천장 등의 평가 기준 중 하나 (연 4회 실시)	2차 응시 자격시험 (연 1회 실시)

<표1: LEET, LSAT, PSAT의 목적 및 시험과목>

	LEET	LSAT	PSAT
시간 및 문항 구성	언어이해 (40문항, 90분, 1지문 3문항 원칙, 5지택1형) 추리논증 (40문항, 120분, 1지문 1문항 원칙, 5지택1형) 논술 (3문항, 90분, 3문항)	독해 (24-26문항, 35분, 1지문 다문항, 5지택1형) 논리적 추론 1 (24-26문항, 35분, 1지문 1문항, 5지택1형) 논리적 추론 2 (24-26문항, 35분, 1지문 1문항, 5지택1형) 분석적 추론 (24-26문항, 35분, 1지문 다문항, 5지택1형)	언어논리 (40문항, 80분, 1지문 1문항 원칙, 5지택1형) 상황판단 (40문항, 90분, 1지문 1문항 원칙, 5지택1형) 자료해석 (40문항, 90분, 1지문 1문항 원칙, 5지택1형)

<표2: LEET, LSAT, PSAT의 문항 구성>

4. LEET, LSAT, PSAT의 문제 유형

LEET와 LSAT의 문제 영역이 서로 다른 강조점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 사소한 차이가 아니라고 하는 측면은 구체적으로 출제되는 문제 유형이

다르다는 점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LEET의 언어이해 영역에서는 LSAT의 어느 영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종류의 문제 형태들이 있다. 어휘나 어법을 묻는 문제나 문학작품의 지문을 사용하는 문제들이 그것이다. 지난 1월에 실시된 예비고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로, LEET의 언어이해 영역에서는 어휘 및 어법을 묻는 문제(4문제)와 문학작품에 기초한 문제(6문제)가 모두 10문제로 출제되었다(부록 1 참조). 이는 언어이해 영역의 25%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비중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LSAT 뿐만 아니라 PSAT에서도 어휘나 어법을 묻는 문제 또는 문학작품에 기초한 문제들이 출제되지 않는다.¹²⁾ 그것은 이러한 종류의 문제들이 논리적 사고력을 측정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¹³⁾ 물론 LSAT와 PSAT에서 대입 수능의 국어 문제와 비슷한 이러한 유형의 문제들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유형의 문제들이 중요하지 않거나 의미가 없다는 판단은 잘못된 것이다. 그 역할과 기능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유형의 문제들이 LEET의 목적에 잘 부합하느냐의 여부 때문이다.

어휘나 어법의 문제 유형은 분명히 논리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문제는 아니다. 사고력의 증진을 위해 도움이 되는 영역에 포함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 논리적 사고력을 측정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LEET의 목적이 LSAT보다 느슨하게 제시된 것은 바로 LEET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출제할 수 있게 한다. 즉 LEET는 그 목적이 “기본적 소양과 잠재적인 적성”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시험의 측정 내용이 논리적 사고력을 넘어서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를 두고 LEET는 법학대학원에서의 수학 능력에만 초점을 맞추기보

12) 역시 비슷한 종류의 국내 시험인 의치학전문대학원입학시험 MEET/DEET에서는 어휘력을 묻는 문제나 문학작품에 기초한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다. 하지만 그 시험의 주관은 LEET와 마찬가지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고 출제팀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은 듯 하여 어휘나 어법을 묻는 문제 또는 문학작품을 기초로 문제를 만드는 것이 이러한 종류의 시험에서 강조해야 할 점인지에 대한 판단 근거로 삼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13) 민찬홍 교수는 대동철학회의 토론에서 문학작품을 기초로 문제를 만드는 것이 귀납적 추론의 문제를 만드는데 적절한 방식일 수 있다며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논지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학문 영역에서 다양한 종류의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LEET의 취지라는 점에서 볼 때, 문학작품을 기초로 문제를 만드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많은 경우 문학작품에 기초한 문제들은 귀납적 추론의 문제와 같은 논리적 사고력을 시험하는 문제가 아니라 대입 수능시험에서 쉽게 접하게 되는 국어 시험 문제의 형태를 지닌다는 현실적 문제를 안고 있다. 부록에 포함된 [죄와 벌] 지문의 16번 문항이 바로 이에 해당한다.

다는 법학대학원에서의 수학 자격에도 관심을 기울여서 그 자격에 속하는 기본 소양으로 올바른 국어 사용 능력을 평가하고자 한다는 옹호도 나올 수 있을 듯 싶다. 그렇다면 결국 문제의 초점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수학 능력과 범조인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인 소양과 잠재적인 적성”은 어느 영역까지를 평가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인가, 또는 삼을 수 있는가이다. 그리고 그러한 측면은 과연 LEET의 평가 대상인가의 문제도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마지막 절에서 논의해 보기로 한다.

일부 문제들이 논리적 사고력을 측정하기 위한 LEET의 출제 방향에 부합하느냐의 여부 문제를 쫓혀 두더라도 LEET에서 어휘나 어법 등 국어 문제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하게 크다는 비판은 논란의 여지가 없이 가능하다. 나아가 국어 문제들을 넣는 이유가 “언어 시험 문항의 출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들을 출제 위원에 고정적으로 포함시키기 위한 장치”¹⁴⁾라면 그것은 매우 부적절한 결정이다. 여러 학문 분야에서 골고루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자 하는 LEET의 기본 출제 방침은 제한된 문항 수 때문에 쉽게 만족시키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단지 문제 출제 전문가 일부를 포함시키기 위해 국어라는 일부 학문 분야에 25%에 해당하는 많은 문제를 할당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문학적 지문이 과도하게 많다는 점의 근거는 또 다른 측면에서도 지적될 수 있다. “수능의 언어영역은 일상 언어와 관련한 언어 능력 및 사고력을 검사하는 시험이면서 고등학교 국어 교과에서 가르치는 수준의 문학적 소양의 검사까지 포함하는 시험이다. 의치학 전문대학원 입학시험(MEET/DEET)의 언어추론은 문학적인 텍스트를 다루더라도 그것을 일상 언어의 텍스트로 간주할 뿐 그것을 읽어내는 문학적 소양을 검사하지는 않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여전히 그 시험은 언어 능력 및 추리력 비판력 등의 사고력 검사까지 포함하는 시험이다.”¹⁵⁾ 이처럼 LEET가 언어 능력 및 추리력 비판력 등의 사고력 검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문학적 소양을 검사하지는 않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배제된 다른 학문 영역의 지문을 선정하지 않고 굳이 문학 지문을 사용할 이유는 없다. 그것도 하나가 아닌 둘을 넣을 근거는 더 더욱 없다.

14) 민찬홍, 「법학적성시험(LEET)에 대한 몇 가지 생각들」, p. 4, 2008년 한국 논리학회 4월 학술 발표회, 2008.

15) 민찬홍, 「법학적성시험(LEET)에 대한 몇 가지 생각들」, p. 4, 2008년 한국 논리학회 4월 학술 발표회, 2008.

혹시 LEET의 언어이해 영역과 추리논증 영역의 구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언어이해 영역을 좀 더 ‘국어’적으로 만들어서도 안 된다. “언어이해의 문제에서 추리력, 비판력을 묻는 문항을 축소하고 제거함으로써 언어이해와 추리논증의 거리를 벌리려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¹⁶⁾기 때문이다. LEET는 문제 구성 방식의 정당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문제들을 출제해야 할 것이고, 그것은 LSAT처럼 논리적 사고력의 측정에 초점을 맞춰 그에 부합하는 문제들을 출제하는 일일 것이다.

언어이해 영역뿐만 아니라 추리논증 영역에서도 논리적 사고력의 측정이 라는 측면에서 볼 때 추리 부분과 논증 부분의 문항 비중이 적절하게 배분되었느냐의 문제 역시 재고의 필요성이 있다. 민찬홍 교수의 다음과 같은 주장은 LEET의 실제 출제시 분명히 반영해야 할 부분이다. “이 시험 [LEET]이 법학적성시험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두 영역[언어추리와 수리추리]에 속하는 문항들이 양적으로 비슷해서는 안되고, 언어추리에 속하는 문항들이 훨씬 더 많아야 할 것이다. 지난 예비검사에서서는 이런 점에 대한 고려에서도 성공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수리추리에 속하는 문항의 비중이 지나치게 크다.”¹⁷⁾

추리논증 영역에서 보완해야 할 또 다른 점은 역설 유형의 문제가 출제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PSAT의 문제(2005년 행정 외무고시 1차시험 PSAT 언어논리 2책형 31번 문제)는 역설 유형에 해당한다.

문 31. 다음 글에서 나타나는 역설적 상황을 해소하는 방안이 될 수 없는 것은?

우리는 정신이 행동의 원인이라고 믿어왔다. 예컨대 손을 올리고자 하는 나의 의지는 손을 올리는 나의 행동의 원인이 된다고 믿는다. 반면 최근 일부 인지 과학자들은 행동의 인과적 발생에 정신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믿는다. 인간의 행동은 그 원인이 되는 물리적 사건들-뇌 속의 뉴런의 변화, 뉴런으로부터 전달된 전기화학적 에너지에 의한 중추신경계의 변화, 다시 근육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통하여 완벽하게 설명된다는 것이다.

- ① 정신적 현상은 물리적 현상의 일종임을 설명한다.
- ② 정신적 현상은 물리적 현상에 수반된다고 설명한다.
- ③ 어떤 행동이라도 아무런 원인 없이 발생할 수 없음을 설명한다.
- ④ 정신적 현상은 실재하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상 실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16) 민찬홍, 「법학적성시험(LEET)에 대한 몇 가지 생각들」, p. 5, 2008년 한국 논리학회 4월 학술 발표회, 2008.

17) 민찬홍, 「법학적성시험(LEET)에 대한 몇 가지 생각들」, p. 7, 2008년 한국 논리학회 4월 학술 발표회, 2008.

- ⑤ 정신적 현상은 실제로 아무런 인과적 힘을 갖지 않음을 인정하고, 왜 사람들이 정신이 인과적 힘을 갖는다고 잘못 생각하는지를 설명한다.

이러한 역설 유형 문제는 사고력을 측정하는 언어추리의 대표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주어진 상황이 왜 역설적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요청한다. 이것은 고차원의 논리적인 사고력을 요청하는 좋은 문제 유형이라고 보여지는데, PSAT와 달리 LEET에서는 하나의 문제 유형으로 포함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논자는 LEET의 문제 유형을 다양하게 만드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기존의 예비고사에서 출제된 유형을 중심으로 완성도가 높은 더 좋은 문제를 만드는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역설 유형은 새로운 문제 유형이기보다는 이미 검증된, 간과된 좋은 문제 유형이기에 지적할 뿐이다.

5. 논리적 사고력과 법학적 소양

LEET는 논리적 사고력의 측정을 위해 적절한 시간 배분을 하고 있다. LEET의 언어이해 영역은 40문항에 대해 90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고, 주로 1지문 3문항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1지문 1문항 위주로 되어 있는 추리논증 영역의 경우도 40문항을 120분 동안 풀도록 계획되어 있다.

이와는 달리 LSAT는 23-27문항을 35분 동안 풀도록 한다. 비록 분석적 추론 및 독해는 1지문 다문항의 형태를 띠어 그나마 사정이 낮지만 논리적 추론은 1지문 1문항의 형태라서 논리적 사고력의 측정을 위한 적절한 시간 배분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은 PSAT도 다르지 않다. 논리적 사고력 측정 도구로써 PSAT를 높이 평가하는 김명석 교수도 PSAT가 언어속독 시험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¹⁸⁾ 실제로 PSAT의 기출 문제들을 보면 지문의 길이가 짧지 않고, 주로 1지문 1문항 문제이기 때문에 40문항을 80분이라는 제한된 시간에 풀어야 하는 것은 사고력 시험보다는 속독 시험이 될 위험소지가 다분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PSAT 출제팀은 먼저 언어추리 영역에서 1지문 2문항 형태의 문제 개발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글자 수를 줄이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한다. 시험 시간이 적

18) 김명석, 「PSAT와 논리적 사고력」, 2008년 한국 논리학회 4월 학술 발표회, 2008.

절해야만 논리적 사고력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처럼 LEET는 LSAT나 PSAT보다 시험 시간 배정이라는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논리적 사고력의 측정을 위해 적절한 환경을 갖췄다. 이러한 장점을 지닌 LEET 역시 형식적 측면에서 PSAT로부터 취할 수 있는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 중 하나는 PSAT가 지문의 숫자나 문제의 형태에 큰 제한을 두지 않는 반면 LEET의 언어이해는 한 지문에 3문항이라는 제한을 두고 문제의 형태도 좀 더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더 좋은 문제를 만드는 데에 있어 불필요한 단서를 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특히 한 지문에 3문제를 만들려면 대개의 경우 단순한 내용 파악 문항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 유형은 논리적 사고력을 측정하기에 좋은 문제라고 하기 어렵다. 이러한 유형의 문제는 LSAT에서도 많이 출제되지 않는 것이며, PSAT에서도 이미 그 비중이 낮지만 더욱 낮추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2지문에 대해 1문항씩 이러한 단순 내용 파악 문항이 들어간다면 그것은 40문항 중 모두 12문항으로 30%의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따라서 LEET가 논리적 사고력의 측정이라는 측면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는 1지문 3문항의 문제 형태 이외에 1지문 1문항 및 1지문 2문항의 문제 형태를 포함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이제 논의해 봐야 할 점은 앞서서도 언급한 문제로 LEET에서 법학적 소양을 어느 정도까지 테스트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가이다. 이러한 논의가 필요한 것은 LEET의 목적은 기본능력과 소양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애매하게 기술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LEET를 구성하는 언어이해 영역과 추리논증 영역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평가 대상이 첫째, 언어 이해 능력, 의사소통 능력 및 종합적인 사고 능력, 그리고 둘째, 추리 능력과 논증 능력 등으로 제시되어, 간략하게 논리적 사고력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LEET 역시 실질적으로는 논리적 사고력의 측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LEET의 다른 한 영역인 논술 영역도 그 구체적 목표가 분석적·종합적 사고력과 논리적 글쓰기 능력을 측정한다고 하여 그 평가 대상이 논리적 사고력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논리적 사고력이 법학적 소양의 전부라는 주장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몇몇 대학에서 발표한 법학대학원 입시 요강에 따르면 대체적으로 학부 성적과 영어 점수, LEET 점수, 그리고 논술 및 면접 점수가 주요 평가 기준이다. 이 때 LEET는 하나의 시험에 불과하고, 그 주

요 목적이 넓은 의미의 법학적 소양을 평가하는 데에 있지는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넓은 의미의 법학적 소양은 학부 성적이나 면접과 같은 다른 부분의 평가를 통해 살펴보아야 하고, 또 그것이 더 적합한 방법이라고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LEET는 논리적 사고력과 논리적 사고력을 보조하는 수단으로써의 언어능력을 평가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물론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수학 능력과 법조인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 소양과 잠재적인 적성”은 가능한 한 많은 영역을 평가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으면 좋다. 따라서 어휘력이나 어법, 문학 등의 기초적인 국어 사용 능력을 평가하는 것도 좋겠다. 하지만 문제는 LEET를 통해 얼마나 여러 가지의 “기본적 소양과 잠재적인 적성”을 평가할 수 있느냐이다. 기초적인 국어 사용 능력이 “기본적 소양과 잠재적인 적성”에 포함되는 것처럼 토론 능력, 프리젠테이션 능력, 사회의 여러 가지 예법, 윤리 의식 등등 많은 것들이 “기본적 소양과 잠재적인 적성”에 포함된다. 이 모든 것을 LEET에서 평가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그것은 가능하지도 않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LEET 점수만이 법학대학원의 입학 가르는 기준이 아니라는 점이다. LEET 점수 이외에도 학부 성적과 면접 등이 중요한 기준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다른 요소들은 바로 “기본적 소양과 잠재적인 적성”을 평가하기에 더 적절한 시험이다. 따라서 굳이 LEET가 이 모든 “기본적 소양과 잠재적인 적성”을 평가할 이유가 없다.

더 나아가 기초적인 국어 사용 능력이 LEET에서 특별히 평가 대상으로 삼을만하다고 해도 이 부분이 굳이 언어이해 영역에서 5지선다형 객관식 문제로 평가될 필요는 없다. LEET에는 논술 부분이 따로 있기 때문이다. LEET의 논술 시험 답안지가 원고지로 되어 있는 것은 글자 수의 제한을 분명히 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기본적인 원고지 사용법과 어법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방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논술 영역에서 기초적인 국어 사용 능력을 평가하고 있는데 이중으로 언어이해 영역에서 또 다시 그 부분을 평가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것도 어휘, 어법, 문학을 합치면 25%의 높은 비중으로 말이다.

시험 문제의 출제 원칙은 하나의 문제로 하나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하나의 시험은 가능한 한 하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가 한 마리도 제대로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LEET가 LSAT나 PSAT처럼 논리적 사고력의 측정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6. 나가는 말

본 논문은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LEET가 논리적 사고력의 측정 도구이지만, LSAT나 PSAT만큼 논리적 사고력의 측정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더 광범위한 시험으로써의 역할을 하려는 듯 보인다는 점을 드러내고자 했다. 특히 LEET의 예비고사에서 보면 논리적 사고력의 측정과는 다소 거리가 먼 어휘나 어법 문제, 그리고 문학지문에 기초한 문제들이 과도하게 많이 배정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지적은 LEET가 논리적 사고력의 측정 도구로써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이를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 법학적 소양의 측정을 LEET 이외의 다른 시험 영역에서 자연스럽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이제 간단하게 법학대학원시대에 철학교육이 나아갈 바에 대한 논자의 짧은 생각을 제시하고자 한다. LEET 등의 시험이 논리적 사고력의 측정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러한 시험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논리적 사고력의 교육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철학교육은 그 실용성을 쉽게 증명할 수 있다. 철학교육이 논리적 사고력의 교육에 가장 적합하다는 주장은 미국에서 LSAT 응시자 중 학부에서 철학교육을 받은 응시생들이 다른 전공 교육을 받은 응시생보다 월등한 성적을 거두었다는 점에서 증명된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이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옹호될 수 있기 위해서는 국내의 철학교육이 많은 준비를 해야 한다. 철학교육의 효용을 실제 LEET에서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LEET 등의 시험에 유의미한 철학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특히 다음 두 가지 측면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좀 더 생산적이고 엄밀한 논리학 수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논리학 수업에서는 LEET의 문제를 검토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논리학 수업이 구체적으로 LEET의 문제 해결에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더욱 중요한 다른 하나는 철학 수업의 중요한 부분이 논쟁에 있다는 점을 학생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도록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철학 수업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그래서 일상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문제를 넘어서 추상적인 문제들에 대한 논쟁을 진행함으로써 학생들의 논리적 사고력을

배양한다. 바로 이러한 측면이 특히 LEET 등의 시험을 준비할 때 유용한 자산이 된다는 점을 실제로 이해시켜야 한다.

당장 눈앞으로 다가온 LEET의 성공을 위해 한국교육개발원은 논리적 사고력 측정이라는 명확한 목표 아래 그 목표 달성에 적합한 능력 있는 출제진을 구성해야 하는 당면과제를 가진다. 마찬가지로 철학자들은 LEET의 성공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 이외에도 철학교육의 실용성을 증명할 수 있도록 생산적인 논리학 및 철학 수업을 준비해야 한다. LEET가 자동적으로 철학교육의 의미를 드러내 주지는 않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명석, 「PSAT와 논리적 사고력」, 2008년 한국 논리학회 4월 학술 발표회, 2008, p. 2.
 김한승, 「법학적 소양 대 철학적 소양」, 『大同哲學會 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2008, p. 33.
 김한승, 「LSAT와 논리적 사고력」, 2008년 한국 논리학회 4월 학술 발표회, 2008, p. 9.
 민찬홍, 「법학적성시험(LEET)에 대한 몇 가지 생각들」, 2008년 한국 논리학회 4월 학술 발표회, 2008, p. 7.
 최경석, 「리트에 대한 종합적 반성」, 『大同哲學會 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2008, p. 113.
<http://www.leet.or.kr/>
<http://www.lsac.org>

Abstract

LEET and Logical Thinking Ability

— Comparing LEET, LSAT, and PSAT

— Yeo, Yeongseo —

In summer 2008, there will be the first LEET in Korea. In order to make a successful test, the object and the frame of the problem sets have to be reviewed in detail. This review is what this paper aims to do by comparing LEET with LSAT and PSAT. One of the main difference is that LEET aims to test the basic ability and potential aptitude to become a lawyer while LSAT and PSAT aims to test only logical ability. Then, against the goal of comprising many different areas of science, LEET assigns too much weight to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This paper aims to show that LEET would be better off if it concentrates to test logical ability. This claim is supported by the idea that one good question tests one aspects of an ability, and a successful test would test one ability.

※ **Key Words:** LEET, LSAT, PSAT, legal ability, logical ability.

<부록 1>

2008년 1월 LEET 모의고사의 어휘, 어법 및 문학지문에 기초한 문제 일부

1. 관용 표현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요즘 사업이 계속 게걸음만 치고 있다.
- ② 대변인은 성명서의 요지를 알기 쉽게 변죽을 치며 설명했다.
- ③ 김 과장은 돌아서면서도 불만스러운 듯 고추 먹은 소리를 했다.
- ④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던 아이가 벌써 결혼을 앞둔 늙은 청년이 됐구나.
- ⑤ 박 선생은 오지랖이 넓어 남들 걱정은 잘하는데 정작 자기 앞가림을 못해요.

4. 예시문의 오류가 바르게 수정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예 시 문	수정 내용	
사장님께서서는 사원들의 노고를 격려하셨다.	격려하셨다 → 치하하셨다	... ㉠
잊지 말아야 할 점은 무슨 일이 있어도 도착 시간을 지켜야 한다.	한다 → 한다고 했다	... ㉡

16. ㉠-㉣ 중, 적어하는 바가 다른 것은?

- ㉠ ㉡ ㉢ ㉣ ㉠ ㉢
 ㉡ ㉣ ㉢ ㉣

17. 인물의 심리 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라스콜리니코프'는 그의 병행 사실을 '소년'이 알도록 중요해 가면서도 그런 자신의 행위에 대해 자괴감과 진담감을 느낀다.
 ㉡ '소년'은 '라스콜리니코프'의 암시에 따라 그가 범일킬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면서 공포를 느낀다.
 ㉢ '라스콜리니코프'는 '소년'이 병행 사실을 안 다음에도 그것을 믿지 않으며 애초는 표정을 짓지 않고 피로감을 느낀다.
 ㉣ '소년'은 병행 사실을 직인한 상태에서 진담감과 함께 '라스콜리니코프'에 대한 감미한 동경심을 느낀다.
 ㉤ '라스콜리니코프'는 '소년'이 그를 불행하다고 말하며 웃음을 띠고서 자신의 병행 동기가 이해되었다고 생각하고 감동을 느낀다.

18. <보기>의 ㉠-㉣ 중, 틀 글에서 직인할 수 있는 것은?

<보 기>

도스토예프스키는 『죄와 벌』을 구상하면서 당대 러시아의 대표적 사상과 철학들의 부경적 요소들을 다룬다. 보기가 ㉠ 사회에 투신할 것을 생각하고 그의 행동을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에 사용하는 행위를 휴머니즘의 차원에서 정당화하는 태도와 ㉡ 비법한 인간들의 대치(大對)를 위해 한 행동은 광범한 인간들의 가치 판단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생각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취했다. 이 작품에서 작가는, ㉢ 사람을 죽이는 행위의 동기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려는 태도는 그 자체가 모순이며, 따라서 같은 행위는 자연스럽게 정신적 고통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중요한 심리 묘사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그러한 정신적 고통은 ㉣ 자신의 행위를 사랑과 자살의 차원에서 이해하는 태도를 가진 태 해질 가능한 길로 들어설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 작가는 그 ㉤ 불완전한 행위를 신의 심리에 의존함으로써만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 ㉡ ㉢ ㉣ ㉠ ㉢
 ㉡ ㉣ ㉢ ㉣